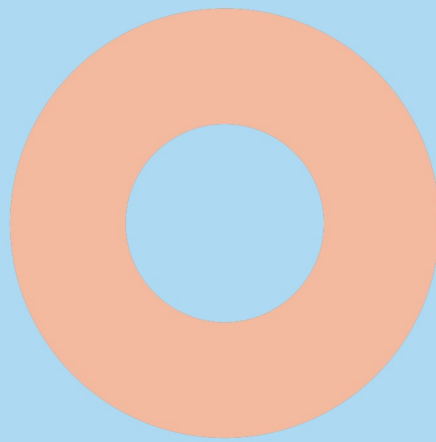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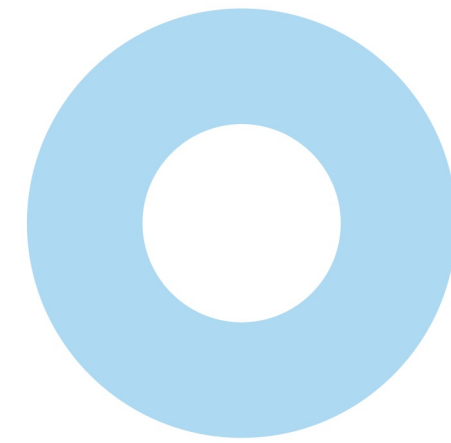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53
2026년 1월



전라남도
여수 여자도 (대여자도·송여자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PEOPLE
RESOURCES
TRAVEL
NEWS & ISSUE



CONTENTS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02 만(灣, BAY)과곶(串, CAPE)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04 이 섬에 가면 걷고, 먹고, 쉴 수 있다
김준 님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9 보이는 만큼 더 궁금해지는 여자도
12 여자도의 평일은 이렇게 귀엽습니다
글 김신연 | 사진 박하린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섬센터에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담당자 | 이지홍
전화 | 061-286-6763 | 이메일 pkss1517@korea.kr
전남의 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5 섬은 섬답게, 그 시간을 지켜보는 사람
정점운 님
19 주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막내, 보건진료소 이야기
김동근 님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23 1월부터 12월까지,
여자도 바다에서 수확하는 해산물
24 알아두면 쓸모있는 K-섬 잡학사전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25 여자도 투어
글 김신연 | 사진 박하린
27 바다 위 중심점, 여자도 탐구생활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29 한국섬뉴스

*올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특별판으로 여수 섬 소식을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만(灣, BAY)과곶(串, CAPE)

정태균 전라남도 섬가꾸기 전문위원

다도해의 섬을 한 바퀴 돌아보면 지도의 단순한 윤곽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해안선은 안으로 깊이 파고든 곳과 바다 쪽으로 불쑥 튀어나온 곳이 반복된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형이 바로 바다와 땅이 오랜 시간 나는 대화의 흔적인 '만'과 '곶'이다. '만'이 품는 공간이라면, '곶'은 드러내는 공간이다.

도움 주신 분들

-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 김동근 여자보건진료소 소장
- 김신연 전 '시웃' 에디터
- 여수시 화정면사무소
- 박하린 섬 사진 작가
- 양진형 한국 섬 뉴스 대표
- 정점운 여자리 이장

발행처

-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발간된 '시웃'이
궁금하다면?



바다가 파낸 품, '만'

'만'은 바다가 육지 안쪽으로 깊게 들어온 지형이다. 파도가 끊임없이 해안을 두드리며 상대적으로 약한 지반을 깎아내린 결과다. 그래서 만은 대체로 물결이 잔잔하고, 바람을 피하기 쉬운 공간이 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만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었다. 배를 대기 쉬워 포구가 생기고, 어촌과 항구가 자리 잡았다. 여수, 통영처럼 섬과 반도가 많은 지역의 도시들은 대부분 크고 작은 만을 끼고 성장했다.

땅이 버텨낸 의지, '곶'

'만'과 반대로 '곶'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길게 돌출된 지형이다. 주변이 깎여 나가는 동안 상대적으로 단단한 암반이 남아 바다를 향해 버티고 선 결과다. 파도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자, 바다의 힘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지점이다. 이 때문에 곶에는 등대가 세워지고, 전망대가 들어선다. 멀리 항해하는 배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자연의 표식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곶에 서면 사방으로 펼쳐진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풍경의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낸다.

'만'과 '곶'이 만들어내는 해안선의 리듬

해안선이 아름다운 이유는 만과 곶이 만들어내는 리듬감에 있다. 들어갔다 나오는 반복, 감싸고 열어젖히는 대비가 풍경에 깊이를 더한다. 이는 침식과 저항, 약함과 강함의 시간적 축적이다. 지도 위에서는 작은 굴곡으로 보일지 몰라도, 섬에서 만과 곶은 섬의 성격을 결정한다. 어업의 방식, 마을의 위치, 길의 방향까지 지형적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만과 곶은 자연이 만든 조형물이자, 인간의 삶을 이끄는 설계도다.”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이 섬에 가면 걷고, 먹고, 쉴 수 있다

김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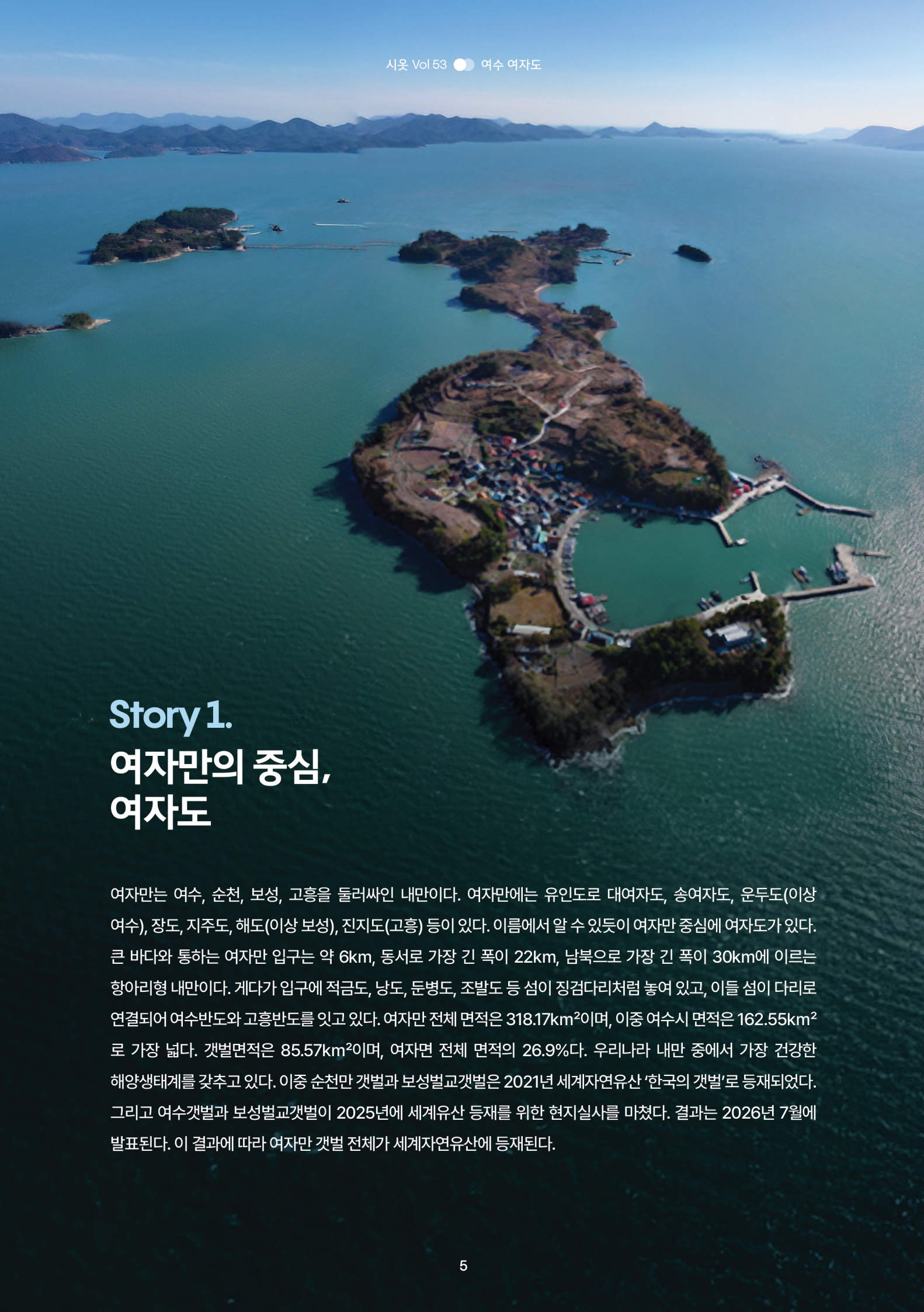
섬문화답사기 저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여자도로 가는 배는 하루에 네 번 섬을 오간다. 첫배를 타려면 어디서건 일찍 나서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배를 타기로 했다. 섬에 들어가 점심 먹기 좋은 시간이다. 여자만 곶간이 괜찮으니 섬 밥상도 좋으리라 생각했다. 날씨는 화창하고 바람이 좀 불었지만,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둘러싸고 있어 결항이 적다. 맛있는 점심을 상상하며 11시 40분에 배를 탔다. 배를 타는 시간은 반 시간이면 족하다.



▲ 마파마을 선착장

여자도는 전라남도 여주시 화정면 여자리에 있는 섬이다. 대여자도와 송여자도(소여자도) 두 개의 사람 사는 섬과 납계도, 동굴섬, 매물섬 등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여자도 본래 지명은 '넘자섬'으로, 섬의 높이가 낮아서 파도가 섬을 넘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여자도는 해발 41m로 낮은 구릉과 평지로 되어 있어 파도가 섬을 넘을 만큼 낮다. 넘은 '녀(汝)'로, 자는 스스로 자(自)로 한자 표기되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 해야 하는 섬'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 하늘에서 본 여자도가 여(汝)를 닮아서 붙여졌다는 설도 있다.



Story 1. 여자만의 중심, 여자도

여자만은 여수, 순천, 보성, 고흥을 둘러싸인 내만이다. 여자만에는 유인도로 대여자도, 송여자도, 운두도(이상 여수), 장도, 지주도, 해도(이상 보성), 진지도(고흥) 등이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만 중심에 여자도가 있다. 큰 바다와 통하는 여자만 입구는 약 6km, 동서로 가장 긴 폭이 22km, 남북으로 가장 긴 폭이 30km에 이르는 항아리형 내만이다. 게다가 입구에 적금도, 낭도, 둔병도, 조발도 등 섬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고, 이들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를 잇고 있다. 여자만 전체 면적은 318.17km²이며, 이중 여수시 면적은 162.55km²로 가장 넓다. 갯벌면적은 85.57km²이며, 여자면 전체 면적의 26.9%다. 우리나라 내만 중에서 가장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중 순천만 갯벌과 보성벌교갯벌은 2021년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여수갯벌과 보성벌교갯벌이 2025년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를 마쳤다. 결과는 2026년 7월에 발표된다. 이 결과에 따라 여자만 갯벌 전체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다.

Story 2. 밥 먹으로 가자

섬여행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식당과 숙소를 찾는 일이다. 민박집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식사도 함께 부탁했다. 여자도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섬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라 민박도 어렵고 식사할 곳도 마땅치 않다. 다행스럽게 여자도에도 어촌계가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이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분은 큰 섬 제주에서 작은 섬 여자도로 여행을 왔다가 자리를 잡은 '제주댁'이다. 봉장어다리 근처에서 '제주댁 심터'를 운영하다 손맛이 소문이 나면서 식당과 숙소를 맡아 운영 중이다.

여자만에서 1982년부터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될 만큼 어족자원이 풍부했다. 패류로는 바지락, 참꼬막, 새꼬막, 피꼬막, 새조개, 키조개 등 유명하다. 수산물은 겨울에는 물메기와 송어가 있고, 봄에는 서대, 양태, 주꾸미, 낙지가 있다. 낙지는 여름과 가을에, 주꾸미는 가을부터 봄까지 이어진다. 꽃게와 새우는 가을이 좋다. 이러한 해산물은 그대로 밥상에 올라온다. 이제는 겨울에는 물메기, 봄에는 송어 가을에는 전어를 잡는 정도다. 방배그물로 가지고 참새우를 잡았던 흔적은 '여자도 새우잡이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배그물은 고대구리라 부르는 어업의 하나다.

▼ 마파마을과 송여자도를 연결하는 봉장어다리





▲ 바닷바람에 건조 중인 여자도 물메기

제주택이 차려낸 섬 밥상으로 겨울철에는 물메기탕이나 굴국이 좋다. 국과 함께 내놓는 반찬을 보면, 김치만 해도 배추김치와 총각무김치, 파김치 등 겨울에 어울리게 차려냈다. 여기에 무나물, 시래기나물, 배추나물, 멸치볶음, 깻잎장아찌, 고동 무침 등 모두 제철 재료이거나 손이 많이 가는 반찬이다. 일행 중 누군가 그랬다. 이제 이 밥상을 받기 위해 여자도에 와야겠다.



▲ 제주택이 차려낸 여자도의 겨울 밥상

Story 3. 걷기 좋고, 일출과 일몰이 아름답다

여자도를 찾는 사람들은 두 부류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거나 섬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대여자도와 송여자도를 잇는 다리를 '붕장어다리'라고 한다. 다리 모양도 장어 모양이다. 대여자도와 송여자도를 잇는 섬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것이 있다. 봄이면 마파지 마을에서 대동마을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이 인상적이다.

여자도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좋은 섬이다. 하루에 네 번 배가 오가며, 두 섬이 다리로 이어져 있고, 마을 선착장에 도선이 순항하기 때문에 출발과 도착을 어디에서 해도 좋다. 대여자도 대동마을 선착장에 내리면, 소라초교 '여자분교 - 개미허리 - 검은모래 해변 - 마파지 - 붕장어다리 - 송여자도 분교자리 - 송여자도 선착장'으로 이어진다. 개미허리에서 해안으로 내려가면 검은모래해변을 지나면 데크로 이어진다. 물때에 따라 해안길이 물에 잠길 수 있다. 이때는 곧장 큰 길을 따라 마파지로 걸어도 좋다. 원점으로 회귀한다면 네 시간, 그렇지 않다면 두 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다. 하룻밤을 섬에 머무른다면 대여자도 대동마을이나 개미허리에서 고흥반도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마파지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자도는 일몰과 일출을 함께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 새벽의 숨결이 붉은 빛으로 물드는 여자만





▲ 송여자도 포구를 정돈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민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글 | 김신연 사진 | 박하린

보이는 만큼 더 궁금해지는 여자도

여자도에 처음 닿으면, 섬이 말을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눈앞의 풍경이 한꺼번에 다가오기보다는 조금 걷고 잠시 머문 뒤에야 표정을 보여주는 섬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풍경들이 천천히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여자도는 여수시 화정면에 자리한 섬으로 여수와 고흥 사이 여자만의 바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멀지 않지만 바다를 건너야 닿을 수 있어 섬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마음의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낮은 구릉과 완만한 경사가 이어지고 바다와 마을은 서로 등을 지지하듯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자도는 특별한 장면을 애써 만들지 않습니다. 포구에 정박한 어선, 바다를 향해 열린 집들, 마을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같은 순간들이 그대로 여자도의 얼굴이 됩니다. 이 섬이 오랜 시간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은 이런 일상의 풍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섬의 이름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 섬들이 '여(女) 자 모양으로 둘러서 있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며 지내온 섬이라는 의미에서 여자도라 불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바람과 파도가 낮은 지형을 넘어드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알고 나니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집니다.



▲ 대동마을에서 마주한 한 주민의 삶의 태도



▲ 소라초 여자분교(개교 1941년, 폐교 2025년)



해변과 데크길을 오가며 걷는 여자도 개마허리길 ▶

여자도는 마파마을, 대동마을, 송여자마을로 이어집니다. 각 마을은 포구를 품고 있지만 생활의 결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보면 장면 하나가 다음 장면을 자연스럽게 부르며 섬의 시간을 잇습니다. 무언가를 찾지 않아도 보이는 만큼만 마음에 담아도 충분한 섬입니다. 조금 머물렀을 뿐인데도 떠난 뒤 다시 떠올리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자도는 언제나 한 박자 늦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섬이니까요.”

▲ 새바다와 맞닿은 일상이 시작되는 여자도 마파마을 포구

여자도의 평일은 이렇게 귀엽습니다

여자도의 평일은 대동마을 삼촌이 정성껏 키운 닭들의 힘찬 울음으로 조용히 시작됩니다. 작은 새들은 밤새 잘 지냈느냐 듯 살며시 안부를 건네고 뒷발을 향한 발걸음이 천천히 골목을 지나갑니다. 앞사귀의 촉감을 한번 느껴보며 오늘의 햇살과 바람이 어떤 기분인지 살피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섬에서는 시계보다 자연의 기척이 하루를 이끄는 법이라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아침이지만 그 익숙함이 여자도의 평일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 배와 삶이 만나는 자리 대동마을

계절에 따라 텃밭에서는 섬밥상을 채우는 제철 농산물이 자라고 선착장에서는 어구를 손질하는 손길과 바닷바람에 바다 내음을 더하는 생선들이 하루의 풍경을 만듭니다. 마을을 걷다 보면 햇볕과 바람의 방향을 살피며 자리를 잡은 배추와 무, 각종 채소들과 자연건조 중인 물메기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수확의 순간은 혼자만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삽을 들어 흙을 일구고, 누군가는 채소를 다듬어 바구니를 채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김치용 양념을 준비하며 이웃을 기다립니다. 그 과정에서 건네는 안부와 요즘 바다와 다음 계절에 심을 작물 이야기들이 평일 한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 섬의 아침을 함께 여는 참새와 삼촌이 키운 닭들



▲ 바닷바람 따라 천천히 말려지는 여자도 물메기들



▼ 여자도 중심에 자리한 마파 마을



▲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손끝의 시간



▲ 전동카트로 마을을 오가는 주민의 하루

골목에서는 전동카트가 가장 익숙한 풍경입니다. 많은 주민이 전동카트를 생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며 집과 선착장, 마파마을과 송여자마을을 오갑니다. 카트의 속도는 빠르지 않아서 마주치는 얼굴을 놓치지 않고 잠시 멈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가끔은 주변의 이웃과 섬여행자들의 무거운 짐들도 나눠 싣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섬에서는 전동카트의 속도가 사람 사이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트 한 대가 지나가면 그 뒤로 남는 것은 바퀴 자국이 보다 사람의 온기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일상이자 자연스러운 풍경이 됩니다. 여자도의 평일은 이런 장면들이 모여 완성됩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어도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만으로 충분히 장면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섬의 리듬이 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만큼 마음이 천천히 숨을 고르고 생각이 자리를 잡는 시간이 생깁니다. 여자도 사람들의 하루는 그 속도 안에서 더 깊어지고 그 깊이는 다시 섬의 시간이 됩니다. 눈에 띄는 풍경이 많지 않아 보이는 날도 있지만 그 날의 바람, 그 날의 빛, 그 날 마주친 표정 하나가 오래 남는 곳이 바로 여자도입니다. 고요하지만 비어있지 않고 단순하지만 단단하며 말이 적지만 마음의 이야기는 풍부한 섬. 여자도의 평일은 그런 하루들의 조용한 연속입니다. 오늘은 크지 않은 하루들이 차곡차곡 쌓여 섬의 시간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걸어보았습니다. 내일도 비슷할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매일 조금씩 달라져 있을 거예요.

▼ 마파마을을 감싸는 여자도의 따뜻한 마을길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섬은 섬답게, 그 시간을 지켜보는 사람

정점운 여자리 이장

Q1. 여자도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저는 여자도에서 태어나 이 섬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따라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지금까지 삶의 중심에는 늘 이곳 여자도가 있었습니다. 잠시 섬을 떠나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 보니 여자도에서의 생활이 가장 제 모습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익히며 살아온 시간이 쌓여 어느새 이 섬의 오늘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장을 맡게 된 것도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고향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여자도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섬의 하루하루를 함께 이어가는 일. 그 평범한 일상이 여자도를 계속 여자도답게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Q2. 이장님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여자도에서의 하루는 바다의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대부분의 섬 주민들도 그렇겠지만 개인의 시간에 맞추기보다 도선 운항 시간에 맞춰 하루와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육지로 나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계절의 시간에 따라 바다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발을 돌보는 사람도 있어 하루의 풍경은 늘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장으로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주민들의 일상에 맞춰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 많습니다. 크지 않은 섬이다 보니 작은 변화도 금세 느껴지고 그만큼 사람들 사이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쌓여 여자도의 리듬이 되고, 그 리듬을 지켜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바닷길의 안전을 지키는 돈복섬 무인등대

Q3. 대여자도와 송여자도가 인도교로 연결된 뒤 주민들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마파마을과 송여자도를 이어주는 여자도남시교량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일상은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배 시간에 맞춰 모든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면 지금은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약 10분 정도 다리를 걸으면 행정 업무나 보건진료 같은 간단한 불일을 보기 위해 이동할 수 있어 일상이 한결 수월해졌고 주민들의 생활 반경도 자연스럽게 넓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도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섬은 섬만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리듬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는 편의를 더해주었지만 여자도의 본래 모습과 삶의 방식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있었지만, 그 변화 또한 섬의 시간 안에서 천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마파마을과 송여자마을을 연결하는 여자도 교량

Q4. 이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분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대신 전하고 섬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를 여자도만의 속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섬에서는 작은 불편도 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앞서 나서기보다는 한 걸음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에 손을 보태는 역할이 이장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에는 세 개의 마을이 있고 각자의 생활 방식과 리듬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차이를 하나로 묶기보다 존중하며 이어주는 일, 그리고 섬의 오늘을 무리 없이 내일로 넘겨주는 일. 그 과정이 차분하게 이어질 때 여자도는 흔들림 없이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여자도로 향하는 길에 함께 오른 주민들



▲ 여수시 소라면 섬달천선착장에 도착한 여자호

Q5. 여자도의 내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자도의 생활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도선의 변화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도선은 사람만 탑승할 수 있어, 섬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여자호에는 차량을 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차량을 4대 정도 실을 수 있는 도선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가능해진다면 생활 물자 반입이나 신선한 수산물 유통, 응급 상황 대응 등 섬 주민들의 일상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에서는 작은 불편도 곧바로 생활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앞서 나서기보다 한 걸음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에 손을 보태는 역할이 이장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자도에는 세 개의 마을이 있고, 각자의 생활 방식과 리듬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차이를 하나로 묶기보다 존중하며 이어주는 일 그리고 섬의 오늘을 무리 없이 내일로 넘겨주는 일. 그 과정이 차분하게 이어질 때, 여자도는 흔들림 없이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6. 앞으로 여자도가 어떤 섬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 송여자마을에서 바라본 여자도 낚시교량

여자도는 특별한 수산물보다, 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섬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섬의 풍경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곳이면 충분합니다.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이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금처럼 서로 안부를 나누며 살아가고 섬을 찾는 이들도 그 흐름을 존중해주는 공간. 여자도는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섬은 빠르게 바뀌기보다 오래 이어질 때 더 단단해진다고 믿으며 오늘의 여자도를 차분히 지켜가고 싶습니다.



▲ 단단한 마음으로 여자도를 지키는 정점운 여자리 이장

김신연 에디터 이야기

Editor's Note

섬의 속도를 아는 사람

여자도의 이야기는 오래 이어온 선택의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의 말에는 무엇을 더하겠다는 다짐보다,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지키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섬의 일상은 바다와 사람 사이에서 늘 조심스럽게 균형을 찾아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섬의 속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자도는 누군가의 결단으로 앞서가기보다 함께 걸어온 시간으로 유지되는 섬입니다. 그 시간을 차분히 지켜보는 시선 덕분에 여자도의 오늘은 오늘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도 주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막내, 여자보건진료소 이야기

김동근 여자보건진료소 소장

Q1. 여자도 보건진료소에 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여자도 보건진료소는 제 첫 근무지입니다. 여수에서 자라며 금오도나 사도, 거문도 같은 섬 여행을 했던 기억 덕분에 섬이라는 공간이 제게는 비교적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섬을 오가며 보냈던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언젠가 이런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 섬 근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보다 조용한 곳에서 차분하게 일하는 환경이 제 성향과 잘 맞는다고 느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며 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여자도 보건진료소 자리가 비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지금은 주민들과 하루하루 인사를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보내는 시간은 보건진료소장으로서의 첫걸음이자, 제 삶에서도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Q2. 여자도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처음 여자도에 도착했을 때는 생활의 풍경이 단순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도 앱을 켜보아도 편의점이나 상점 표시는 거의 없었고 교회 몇 곳이 눈에 띄는 정도였습니다. 섬에서 보내게 될 하루하루를 천천히 그려보며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니 여자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출근 첫날, 진료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전임자로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주민 한 분이 진료소 청소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진료소 문을 여는 방법과 불을 켜는 위치 등 기본적인 것들을 차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소통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처음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장을 했으며 김치를 챙겨주셨습니다. 특별한 말이나 설명 없이도 서로의 자리를 살피는 그 마음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드실 때면 저를 꼭 불러 챙겨주시는 모습 속에서 여자도는 천천히 머물수록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Q3. 보건진료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여자도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의료 공간입니다. 감기나 소화 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혈압과 혈당 관리, 관절 통증, 간단한 외상 치료까지 일상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섬이라는 환경 특성상 작은 증상도 세심하게 살피며, 평소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틀니살균세척기나 안마 기기, 건강 관리 장비를 이용하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많아 이곳은 생활 속 건강을 함께 돌보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들러 몸 상태를 점검하고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보건진료소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섬을 찾은 방문객들도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건진료소는 여자도의 작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해경·소방·대형 의료기관과 연계된 대응 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1차 처치와 상황 확인을 진행하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자도 보건진료소에 설치된 틀니살균세척기



▶ 여자도 마파마을에 자리한 여자도 보건진료소



▼ 어선들로 가득 찬 여자도 대동마을 포구



▲ 여자도 마파마을 선착장에 도착한 여자호

Q4. 섬에서 근무하며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섬에서는 배 시간이 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배를 타기 전 약을 챙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작은 일정 하나가 하루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한 발 앞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섬 주민분들이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 건강 기록과 연락 체계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쌓여 큰 안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Q5. 여자도에서 보내는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아침에는 진료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주민들이 오기 전에는 서류를 정리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진료 시간이 시작되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로 하루가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세 곳의 경로당을 돌아보며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주민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퇴근 후에는 섬을 걸거나 자전거를 타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 시간 덕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우는 여유도 함께 생깁니다. 여유가 조금 더 생기면 낚시에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 고즈넉한 풍경이 매력적인 여자도 송여자마을 포구



Q6. 여자도에서의 생활을 통해 느끼는 보람과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요?

주민들이 편하게 진료소를 찾아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잠시 들러 안부를 나누고 이야기를 건네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는 과정은 이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자도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섬 주민들이 보내고 있는 지금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는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자도의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보건 진료소장으로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 여자도 보건진료소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김동근 소장

김신연 에디터 이야기 Editor's Note

곁에 있다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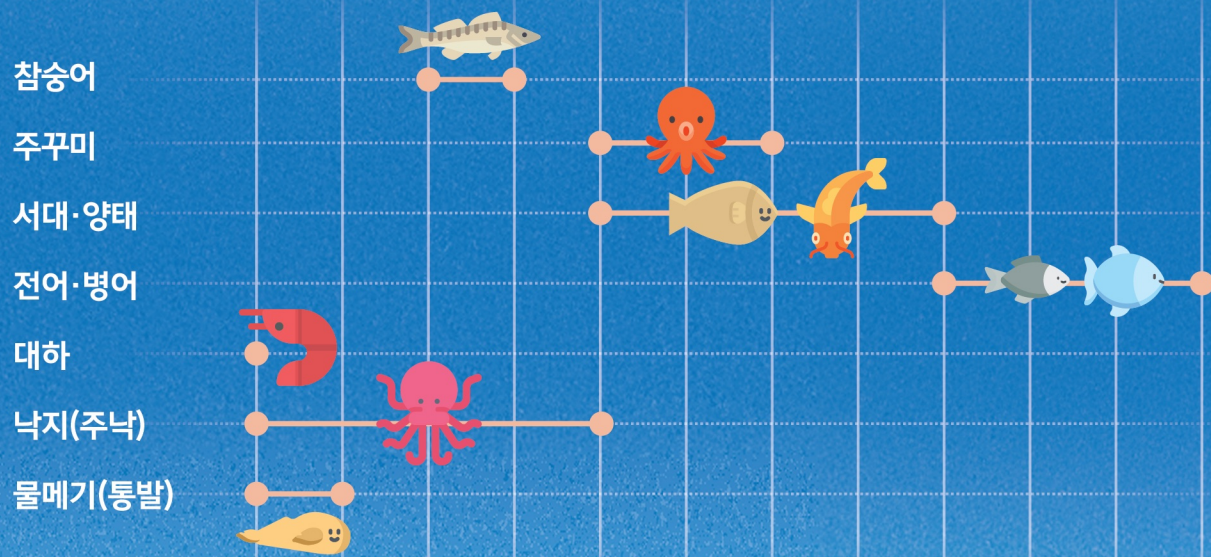
여자도의 하루는 이 작은 보건진료소에서 조용히 이어집니다. 그는 여자도 보건진료소의 최연소 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단단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섬의 시간에 스스로를 맞추며 배우고 익히는 태도 속에서 배울 점 많은 청년이자 어른의 모습을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료와 돌봄의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키는 일은 이 섬에서 큰 힘이 됩니다. 여자도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안심의 장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쌓이는 하루하루는 섬의 일상을 부드럽게 밝혀주고 그의 성실한 태도는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섬의 삶을 배우고,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시간, 언젠가 중년이 된 그의 모습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자도의 하루를 곁에서 지켜온 이 시간들이 그만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여자도 바다에서 수확하는 해산물

해산물 11 12 1 2 3 4 5 6 7 8 9 10 월



알면 쓸데없어 보이지만, 알고 나면 쓸모 가득!

KOREA-섬 잡학사전 '알쓸K-섬잡'. 이번 달의 주제는 해상인도교입니다.

여자도를 찾았다면 마파마을과 송여자마을을 연결하는 여자도 해상인도교를 꼭 한 번 건너보세요.

바다 위를 걷는 감각과 함께 멋진 풍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해상인도교란?

해상인도교는 바다 위를 건너 사람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다리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이동을 돕는 길이자, 섬을 찾은 이들에게는 산책하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자도의 해상인도교에는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행과 함께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형 해상인도교라는 점입니다. 이동의 길이면서 동시에 낚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걷는 즐거움과 바다를 만나는 재미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 마파마을과 송여자마을을 잇는 여자도 해상인도교

다리 위에서는 이렇게 걸어요!

- 난간과 길을 살피며 안전한 걸음으로 이동해요
- 비가 오거나 바닥이 차가운 날에는 천천히 걸어요
- 서로를 배려하며 다리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용해요

우리가 함께 지켜주면 좋은 약속

- 쓰레기는 가방에 쏙 넣어 다시 가져가요
- 바다 주변 생태계를 살피며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 사진을 찍을 때는 뒤에서 오는 사람을 한 번 더 살펴봐요

“천천히 걷고, 함께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자도 해상인도교를 만나보세요”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 투어가이드

*2025년 12월 기준

섬 여행 전
날씨 확인은 필수겠죠?
실시간 여자도 날씨 확인 ▶



여자도 기본현황

98 가구 수 **175명** 인구 **0.5106 km²** 면적 **7 km** 해안선 길이

중계민원처리소, 보건진료소, 치안센터, 여자내연발전소(한전), KT무인국
주요 관공서

송여자도 기본현황

23 가구 수 **41명** 인구 **0.1998 km²** 면적 **3 km** 해안선 길이

여객선 운항정보

- 선착장 : 섬달천선착장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 비용 : 성인(왕복) 5,000원
- 여객선 : 여자호 (☎010-2652-5372)
- 소요시간 : 약 30분

* 여자호는 차량 선적이 불가능한 도선입니다.

* 시내버스 도착 후 출발하며,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이 중단될 수 있으니 탑승 전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구분	동절기 (10.1~4.30)		하절기 (5.1~9.30)	
	여자 출발 (대동 → 마파 → 송여자)	섬달천 출발 (송여자 → 마파 → 대동)	여자 출발 (대동 → 마파 → 송여자)	섬달천 출발 (송여자 → 마파 → 대동)
1항차	08:00	08:40	07:10	08:00
2항차	11:00	11:50	11:00	11:50
3항차	14:00	14:40	14:00	14:40
4항차	17:00	17:30	17:20	18:00

식당 및 편의 정보

- 교량낚시터휴게소 (여수시 화정면 마파지길 20-29, ☎061-666-1116)

여자도 한눈에 보기



바다 위 중심점, 여자도 탐구생활

글 | 김신연 사진 | 박하린

여자도의 여행은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어디를 꼭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아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이 나타나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도를 보는 것보다 발걸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바다의 방향과 길의 흐름이 여행의 순서를 차분히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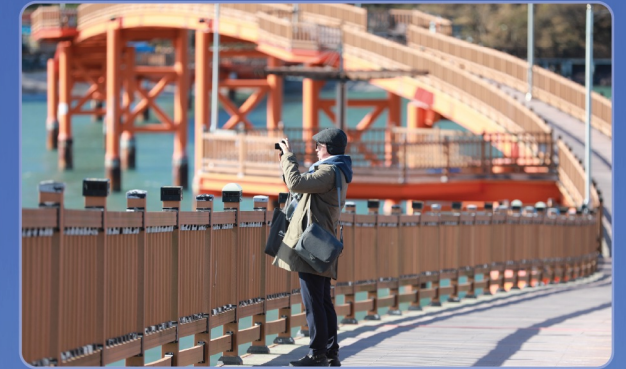
마파마을과 대동마을 사이에는 섬이 가장 잘록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개미허리길'이라 불리는 이 길에서는 양쪽 바다가 가까워지며 여자도의 지형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여자만의 풍경과 여수 쪽 해안을 바라보며 해변과 절벽 둘레길을 번갈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연이 빚어낸 예술 작품 같은 절벽을 마주하다 보면 탄성이 나올 만큼 마음이 멍칫하고, 걸음도 자연스레 느려집니다. 잠시 멈추면 바다가 보이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길은 또 해변으로 이어집니다.

절벽 길을 지나 시야가 넓어지는 순간, 여자도 해상인도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에 놓인 이 길은 마파마을과 송여자마을을 잇는 생활의 통로이자 여자도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해상인도교를 건너 송여자둘레길에 접어들면 수목화 같은 고흥의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동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여행의 장면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 여자도의 가장 잘록한 개미허리길



▲ 마파마을과 송여자도를 이어주는 해상인도교



▲ 여자만의 한 가운데 서있는 김준 박사

여자도의 해상인도교는 바다 위를 걸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입니다. 보행과 낚시가 함께 가능한 구조 덕분에 걷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이 한 장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이 길 위에 서면 여자도가 어떤 섬인지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이동을 위한 길이면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한 이 공간은 섬의 생활 방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송여자마을에는 당산나무 아래 비밀처럼 자리한 작은 대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지나가야 하는 좁은 길에서는 바람이 스칠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길 위로 퍼집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운이 좋다면 산새들의 소리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작은 협주곡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눈보다 귀가 먼저 풍경을 기억합니다.

걷는 시간만큼 섬에 대한 이해도 함께 깊어집니다. 여자도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섬의 중심에 닿게 되니까요.



스쳐 지나도 미소가 남는 송여자도의 인사 ▶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2026 올해의 섬에” 정부, 영해기점 여수 거문도 지정

▶ 섬 전역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기암괴석, 동백 숲길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 ‘올해의 섬’으로 전남 여주시 삼산면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거문도를 지정했다. ‘올해의 섬’은 2023년부터 영해기점 유인섬 7곳 중 매년 1곳을 선정해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사업이다. 거문도는 남해 먼바다에 위치해 태풍 시 선박의 피항처 역할을 하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췄다. 또한 거문도 사건 유적 등 역사적 자산을 보유해 자연·역사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높다. 정부는 영해기점 섬의 안보·생태·전략적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양진형 기자 | 2026. 01. 27.

해수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 추가 공모

▶ 올해 3개 항로 추가 선정

해양수산부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대상 지자체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없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행정선을 투입할 경우, 선박 운영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항로, 18개 소외도서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3개 항로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수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항로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채경 기자 | 2026. 01. 20.



전남도, 3천억 투입 ‘섬 어촌 활력’ 증진... 해양레저관광

▶ 여수세계섬박람회 어촌 신활력증진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라남도는 올해 섬-어촌-해양관광 분야 56개 사업에 총 3,08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524억 원 늘어난 규모로, 섬과 어촌을 체류형 해양관광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섬 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83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어촌 분야는 어항 정비와 복지서비스 운영 등으로 어업 기반과 주민 생활 여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준성 기자 | 2026. 01. 11.



백령 흑산항로 뱃길 상황, 섬 주민 여행객들 ‘실시간’ 확인

▶ 해양교통안전공단, 여객선 기항지 ‘지능형 CCTV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시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백령도·대청도·흑산도 항로의 뱃길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객은 인천항-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전용 스크린을 통해 현지 기상과 선박 입출항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상 영향으로 잦은 운항통제에 인한 대기 불편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해 여객선 운항통제가 약 2만4천 건에 달한 점을 고려해, 향후 기상 영향이 큰 항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채경 기자 | 2026. 01. 12.

전남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원팀 체제’ 가동

전라남도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여주시·조직위와 함께 전시·행사·안전·교통 전 분야 협업을 강화하는 ‘원팀 체제’를 가동했다. 주 행사장과 전시관 조성은 공정률 40%를 넘겼으며, 2026년 7월 주요 시설 완공 후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박람회를 정식 개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관람객 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체류형 프로그램과 국제 홍보를 확대하고, 안전·교통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박람회를 전남 미래 성장의 계기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준성 기자 | 2025. 01. 13.



여주시, 섬박람회 자원봉사자 ‘다봉이’ 1200명 모집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함께 운영할 자원봉사자 ‘다봉이’ 1,200여 명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다봉이’는 섬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와 ‘다함께 봉사한다’는 의미를 결합한 공식 자원봉사자 애칭이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주행사장과 외부 행사장 등에서 통역, 관람객 안내, 셔틀버스 지원, 행사 운영 보조 역할을 맡는다. 여수시는 사전 안전 교육과 함께 유니폼·활동 물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활동 참여자에게는 1일 6시간 기준 실비 2만5천 원이 지급된다.

양진형 기자 | 2026. 01. 19.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

2026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